

말기암환자의 수용과 희망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

의사

1. **환자명:** 정가을(49세 · 여자)

2. **주 호소**

2일 전부터 시작된 하지 무력감과 배부 통증

3. **현병력**

2002년 자궁 경부암으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받은 후 집에서 지내다가 내원 2일 전부터 시작된 하지 무력감 발생하여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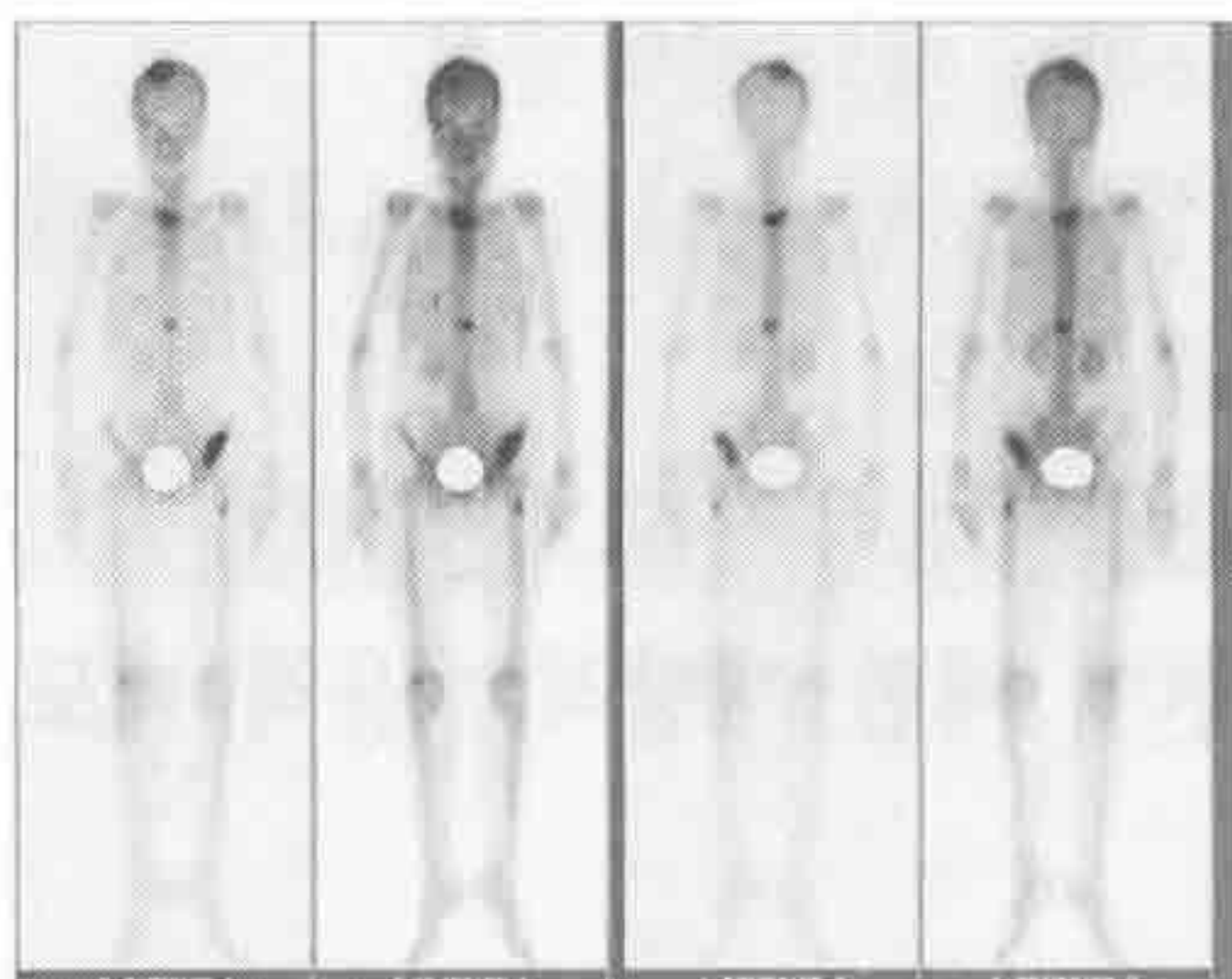
4. **과거력:** 당뇨(-), 결핵(-), 간염(-), 고혈압(-)

5. **이학적 소견**

ECOG 활동 능력 - 3점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은 안정
 T2, T11 부위의 압통
 양측 하지의 운동기능 저하

6. **방사선 소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골 스캔



척추 MRI



7. **진단**

재발성 자궁 경부암
 척수 압박 증후군 (흉추 2번)
 다발성 골 전이
 다발성 간 전이

8. **계획**

- 1) 완화적 방사선 치료 및 스테로이드
 흉추 2번 : 3500 cGy
 요추 11번 : 3000 cGy
- 2) 통증 조절
 NSAIDs
 모르핀
- 3) 호스피스 팀 접근

- 방사선 치료 후 통증 호전됨
- 가정 호스피스 연계하여 퇴원함

간호사

1. 사례 발표

- 대상자: 정O O(F/49)
- 진단명: 자궁 경부암
 뼈 전이(골반, 두개골, 척추)
 간, 비장, 복강내 전이
- 재원기간: 2005년 8월 9일 ~ 9월 30일
- 호스피스등록: 2005년 8월 29일(호스피스 병
 동으로 이실)

2. 호스피스 의뢰

-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방사선과 간호사와 면담
- 보호자인 아들과 호스피스팀 면담
- 호스피스팀 의뢰
-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 후 보호자 호스피스
 동의
- 호스피스 등록, 병실 이실

3. 개인력

- 성격: 긍정적이고 이해심 많음
 사회봉사 경력 있음
- 종교: 기독교
- 병식: 예후에 대해 알고 있음
 현재의 침상안정상태에 대해
 우울한 감정 표현

4. 환자 사정

- 의식: 명료
- 식이형태: 일반식(1200cal/1일)
- 피부: 건조하고 각질이 있음
- 배변: 3일에 한번씩 관장
- 배뇨: 유치 도뇨관 유지, 혈뇨 양상
- ADL(일상생활 활동): 의존적
- 환자의 활동도: ECOG(4)
 침상안정
 침상에서 배변 배뇨

- 욕창 없음
- 수면: 7~8시간/1일
- 의사소통: 원활
- 통증 사정
 -부위: 오른쪽 어깨(뼈 전이)
 Back pain(T11, T12 골절)
 -양상: 빠근한 통증 호소
 -통증 조절:

입원시	이실시	퇴원시
VAS-4	VAS-6	VAS-3
ZAPF1Ⓢ Bid	N-OXY051Ⓢ Bid	ZAPF1Ⓢ Bid PRN N-OXY051Ⓢ

- 심리 사회적 사정
 -예후에 대해 알고 있으나 “한번 마음껏 걸었
 으면”하고 다소 우울하게 표현
 -남편과 아들의 갈등 관계에 대해 걱정주간호
 자인 아들의 직장문제에 대해 불안해함

5. 간호진단

- 통증과 관련된 안위 변화/우울
-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대처
- 침상 안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개인 위생
- 질병의 예후와 관련된 불안/절망감
- 통증 관련된 안위 변화/우울
 -사정: T11, T12 골절, 오른쪽 어깨 전이로 인
 한 통증 호소,
 “허리하고 어깨가 쑤셔요”
 침상안정으로 우울해함
 감각둔화로 배뇨 장애생김
 -중재: 통증정도(VAS-4)로 NASIDs계인
 ZAPF로 조절
 -배뇨 장애 해결위해 유치 도뇨관 삽입
 -통증을 표현에 대한 개방적, 수용적 태도로
 접근

- 통증과 관련된 안위 변화/우울
 - 전환요법: 침대를 창밖이 보이도록 배치
화분을 병실에 가져다 놓아 분위기 전환 할수 있도록함
 - 이완요법: 발맞사지
 - 평가: 퇴원 시 측위로 있을수있게됨(VAS-3)
유치도뇨관 계속 유지 중
-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 대처
 - 사정: “어머니가 아픈 뒤 아버지가 술을 더 드세요.”
부자간 대화 거의 없음
주간호를 아들이 하고 아버지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모름(이모와 상의)
가족간 예후에 대해 대화 없음
 - 중재: 주간호자인 아들 상담과 지지
부자간 화해를 위해 팀 접근 시도
-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비효율적 가족 대처
 - 평가: 부자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족간 화해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대처위해 호스피스팀이 방문하고 있음
- 침상 안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개인 위생
 - 사정: 침상안정머리감기, 발씻기 등이 적절이 이루어 지지 않음
“머리를 못감아 답답하네요.”
 - 중재: 자원봉사자가 주 2회 머리 감기해줌
아침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발을 닦아주고 로손 발라줌
회음부 청결을 위해 물로 닦고 건조
- 침상 안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개인 위생
 - 평가: 개인 위생의 강화로 기분 전환의 기회
모닝케어시 환자가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

- 질병의 예후와 관련된 불안/절망감
 - 사정: “어차피 죽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대로 못 걷는 것이 너무 슬퍼요.”
“아들 몰래 울었어요.”라고 하며 감정 표현 절제함
 - 중재: 두려움, 절망감에 대한 표현 격려/경청.
영적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지
지금까지 봉사적인 삶에 대해 인정
- 질병의 예후와 관련된 불안/절망감
 - 중재: 가족간 사랑의 감정을 적극 표현 할 수 있도록 격려
 - 평가: 봉사자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편안해 함
자주 교회 전도사님이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 들으며 수용적인 모습 보임

6. 퇴원 계획

- 퇴원 시 상태
 - 통증: NASIDs계 진통제 2회/1일, PRN으로
마약성 진통제 복용법 교육
 - 배뇨: 유치도뇨관 유지(1인용 침대 구입) 환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가족과의 대화 지지
- 퇴원 후 관리
 - 전화방문(1회/주)
 - 호스피스팀 가정방문(2회/월)
 - 가정 간호: 본원 가정 간호 연계 퇴원 계획

가정간호사

말기암환자의 수용과 희망

I. 환자 사정

- 배변 : 1일 1회 (완화제 복용후)
- 배뇨 : 유치 도뇨관 유지
- 폐음, 장음 : 정상
- 통증부위 : 등, 무릎, 어깨

II. 간호진단

1. 통증의 정도 변화에 대한 공포감

- 사정 : “지금은 참을만 한데 너무 아파지면 어떻게 하나요”
- 중재 : 드시는 약을 증량하면 되고 약이 듣지 않을 때 주사제와 통증 클리닉에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평가 : 통증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로 접근

2. 가족 구성원의 비효율적 대처

- 사정 : “아버지에게 엄마 상태 알리고 싶지 않아요. 더 술을 드실 테니까”
- 중재 : 남편으로서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함을 설명
- 평가 : 10/31일 가족(4명)과 대화 나눔
-서로 조금씩 양보 했다면 편안해 함

3. 예후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절망

- 사정 : “나 죽으면 우리집 아저씨 어떡해요”
- 중재 : 10/31일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함
- 평가 : 환자, 장남, 딸은 수용하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앉아보기라도 했으면 소원

이 없겠네요” 라며 절망함

4. 영양공급

- 사정 : “엄마가 말랐어요”
- 중재 : 1일 1200Cal 정도 경구섭취
1주 2회 영양주사 (600 Cal) 추가 공급
- 평가 : 육안상 얼굴과 몸에 살이 조금씩
환자와 보호자 조금 나아졌다고 함

II. 방문 간호 내용 및 환자의 변화

▲10/4 (방문 첫날)

- 반갑게 인사하며 간호사 반김
- 보호자, 남편 있음 (음주 상태)
- 신체사정중 환자 “어쩌다 이런병에 걸려서 이러나 몰라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봐요”
-> 체념과 원망
- 전반적 신체사정은 퇴원시와 별 변화 없음
- 가정간호 내용 설명(통증관리, 내관관리, 영양공급)
- 신체사정후 수액공급 실시

▲10/10 (방문 3일)

- 여러 이웃과 의료진, 교회에서 다녀가서 심심하지 않다고 고마워함
- “오늘은 구름이 너무 예뻐요” 하며 소녀처럼 웃음

▲10/20 (방문 6일)

-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운 다 없어요”
- 완화제 처방 확인, 수분섭취 권장함

▲10/24 (방문 7일)

- “대변 시원하게 잘 나와 기분 좋고,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예요”

- 심리적 안정과 수용 자세 보임

▲10/27 (방문 8일)

- 밝은 미소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반깁
- 편안한 모습 보임

▲11/1 (방문 9일)

-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자원봉사자와 간호사

반깁

▲총 10회 방문 후 환자는 원망이나 체념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삶과 죽음의 수용의 자세로 바뀌었고 비교적 처음부터 감정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사회 봉사과 신앙생활, 환자의 성격이 질병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좋은 사례라고 보임.

숲의 님프들의 애타는 사랑을 모질 게 뿌리쳐 버린 죄로 샘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사랑해 버린 미소년 나르시소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나르시소스에게 순애를 바친 것이 바로 프리지아입니다. 프리지아는 역시 숲의 님프였습니다. 그녀는 항시 말 수가 적은 내성적인, 어찌 보면 구식 아가씨였습니다. 이런 프리지아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르시소스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내색조차 나르시소스에게 보이지를 못하고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소스에 대한 애정이 불타면 불타오를수록 그녀는 더 한층 말을 못걸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가뜩이나 자만심이 강한 나르시소스는 순제 그녀의 사랑을 눈치조차 못했습니다. 나르시소스가 복수를 맹세한 님프의 소원을 받아들인 복수의 여신의 저주를 받아, 물에 떠오르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결국 절망을 안고 죽어 버리자, 프리지아는 그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나르시소스를 위해 눈물이 말라 버리도록 울다가 마침내 나르시소스를 따라 그가 몸을 던져 죽은 같은 샘에 몸을 던져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신은 프리지아의 놀라운 순정에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내성적인 까닭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녀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꽃의 세계에서 성공시켜 주자고 생각한 신들은, 프리지아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주고, 또한 유달리 달콤한 향기를 이 꽃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소스가 꽃이 된 수선이 피면, 얼마 후 프리지아가 뒤를 쫓듯이 피어나 달콤한 향기를 뿌리는 것은 그녀의 사심 없는 순결을 나르시소스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달픈 사랑의 전설이 어려 있어서인지 몰라도 프리지아의 꽃 모양은 참으로 가련하리 만큼 청초하고 깨끗합니다. 또한 그 감미로운 향취는 마치 첫사랑에 눈뜨 청순한 소녀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회복지사

I. 환자 정보

1.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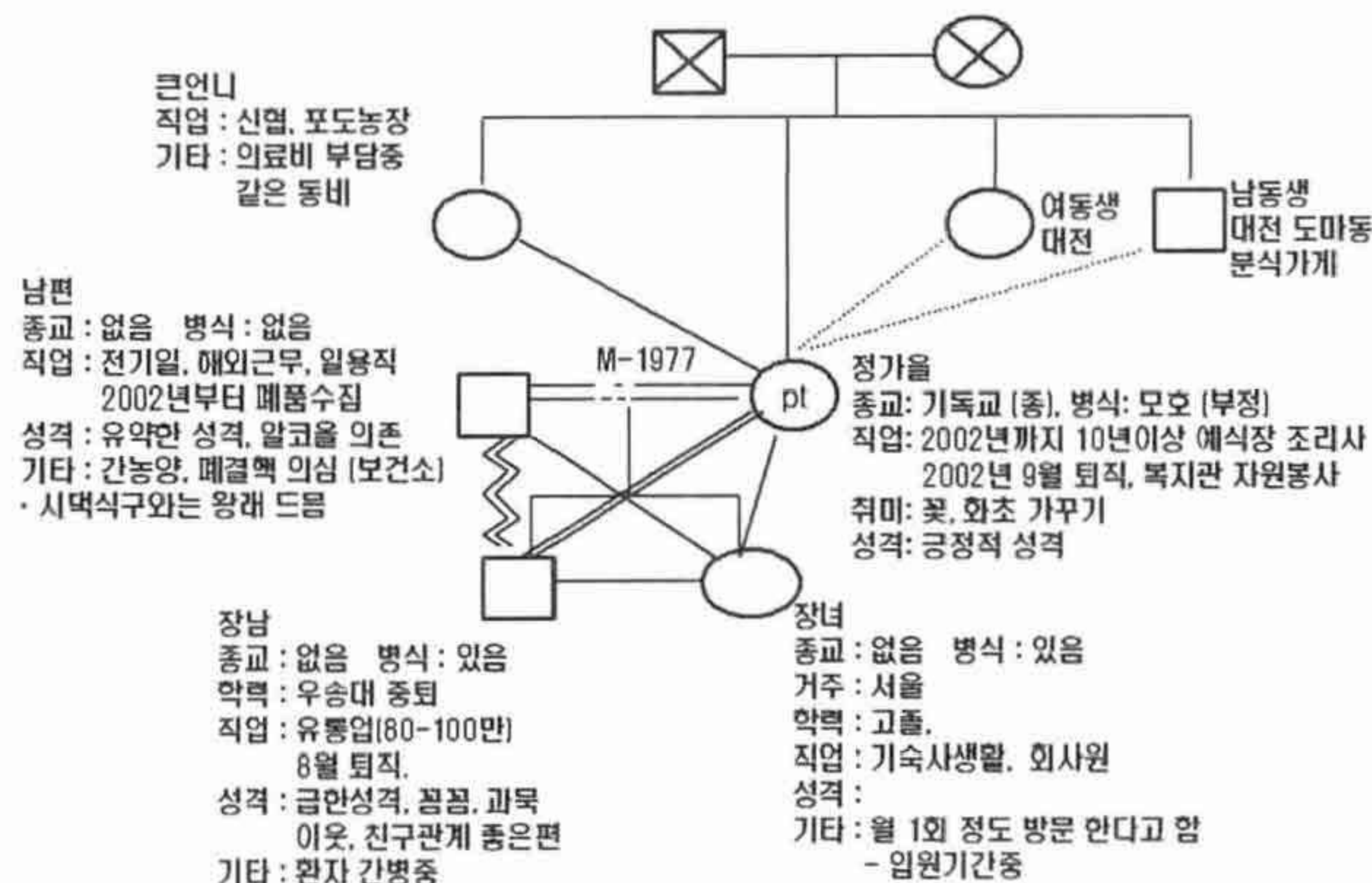
- 성명 : 정 가을 (F/49)
- 결혼상태 : 기혼
- 사회보장 : 의료보험 (아들, 월 38000원)
- 주거 : 전세 1800만원 (2층, 방2, 거실 겸 부엌)
- 종교 : 기독교 (중) 일반적 사항

2. Risk Factor screening

- ① 정신과적 병력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X)
- ② 진단초기 및 질병과정에서 적응의 어려움 (X)
- ③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X)
- ④ 매우 어린 자녀 (X)
- ⑤ 상실의 경험이 많은 경우 (X)
- ⑥ 경제적 문제 (X)
- ⑦ 인지장애 (X)
- ⑧ 다른 질병의 동반, 합병증 (X)
- ⑨ 노인, 소아, AIDS, 시설입소자 및 행려자 (X)
- ⑩ 가족갈등
- ⑪ 가정폭력, 아동학대 (X)

◆약한 수준의 가족갈등이 보이나 특별한 위험요인 없음

3. 가계도



4. 가족력 (Family History)

- 1977년 큰형부 소개로 당시 전기일을 하던 남편과 중매결혼
- 남편이 해외근무 등을 하면서 크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함
- 2002년 환자 진단 이후 본래 술을 좋아하던 환자 남편의 알코올 의존이 심해지고 일을 그만두고 진료비 등으로 경제적 형편 어려워짐 (집을 전세로 옮기고, 장남 군복무후 학업 중단)
- 장남이 간병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갈등

5. 가족관계

▲남편- 환자 관계

- 남편에게는 주로 환자가 술, 담배 줄이라는 잔소리
- 아들이 주로 간병, 환자와 한방 사용, 아들이 작은방 사용함

▲남편- 장남 관계

- “아버지가 오시면 엄마가 속상해 하니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 다소 취한 모습으로 울고 있자 (“아버지 좀 나가주세요”- 아들)

▲장남이 가장 역할

- 치료계획,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장남, 장녀, 큰언니가 상의하여 결정
(“신경 안쓰셔도 되요. 있는 돈이랑 이모가 도와줘서 내고 있어요”)
- “아버지와 환자는 모르고 있어요” - 장남
- 집에서 남편은 자주 취해있다고 함 (동네사람들)
-사회복지사 방문시 넘어져서 얼굴 등을 다친 상태
-늘 붉은 얼굴

6. 사회적 배경

- 큰언니
-가까이 살면서 경제적, 정서적 지지
- 교우
-자주 방문하며 기도 등 봉사
- 동네 사람들
-현 거주지에서 결혼후 쪽 생활하였으며 주변 인심이 좋은편

7. 경제적 배경

- 경제적 상태 :
-암보험 1500만
-언니의 도움, 저축한 돈으로 의료비 부담 중임
-의료보험료 39,000원
-현재는 적금(X), 자동차(X), 전세 1800 거주
- 기타
-교회에서 100만원, 켓돈으로 100만원 도움 받음

II. 평가(Assessment)

1. 가족관계, 심리사회적 평가

- 가족관계 평가
-아들의 부담
-남편의 고립
-가족간 대화부족 : 환자의 질환 상태, 임종, 추후 가족내 계획
- 심리,사회적 평가
-환자와, 남편의 Insight
· “여기저기 있는 암이 없어지겠어요. 저도 알아요.”
· “얼른 일어나서 아들 일 나가게 해야죠”
-적극적 감정표현 부족
· “저는 말하는거 좋아하죠. 아들은 할말만 하는 형이예요. 남편한테는 술 그만 마셔라 잔소리나 하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 봉사자들이랑 대화 많이 했어요.
-환자가 긍정적, 희생적인 성격-감정표현 절제

2. 임종관련 계획 평가

- 가족 관계 평가
-환자가 가족내에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해왔음
-예후 악화 시 절망감 및 가족간 단절 우려됨
- 사별관리 계획 관련 평가사항
: 환자 예후에 따라 점검 및 진행 사항
-장례식장 등 임종관련 절차
-남편 등 가족 건강 및 재활계획
-아들, 딸 등 직장 회복
-거주지 문제

III. 개입계획 & 과정

1. 개입계획

- 가족 내 문제 인식정도, 목표 평가 및 공유
- 가족 관계 강화
 - 구성원과의 rapport형성하고
 - 환자 예후 관련 가족간 대화 격려
- 가족의 불안, 심리사회적 부담 완화
 - 환자 및 가족교육
 - 호스피스 팀이 지지적 역할 (전화연락, 방문 등)
 - ‘명료화’ ‘과제부여’ 들을 통한 감정표현 격려
- 가족성원 개별 상담
 - Clarifying & Summary
(스스로 인생에 대한 정리 및 요약)
 - Calm Reassurance (안심하기)
 - Ventilation(환기)

호스피스팀
공유 목표

SW

2. 개입과정

- 1) Intake 상담
 - 정보제공
 - Social study
 - 정서적 지지, 안심시키기
- 2) 팀내 가족관련 정보제공, 목표 공유
 - 봉사자 활동 feed-back
- 3) 가족성원 개별상담
 - 환자 상담 1회(가정)
 - 아들 상담 2회(상담실 1회, 가정 1회)
 - 상담 못함 : 남편(알콜), 딸(시간 맞추기 어려움)
- 4) 가정방문
 - 가정 호스피스 안내
 - 어려움, 질문사항 재평가

행복, 그것은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자' 이다.
 대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되돌아서고 만다.
 그리하여 행복과는 아무 관련없는 어떤 시시한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

- 힐티 -

봉사자

1. 들어가며

늦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8월 말, 정가을 환자를 호스피스 병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는 환자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한 달간 거의 매일의 만남에 환자분은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신상에 관해서도 소탈하게 털어놓고 말을 잘 나눠주는 환자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호스피스 봉사자와의 만남 중, 반복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봉사자로서 대부분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 환자가 원하는 도움

- 신체적 도움
- 영적도움
- 가족관계- 대화

3. 봉사자가 파악한 도움

- 주 간병인의 힘든것을 해소
- 환자를 돌보는 방법 알려드리기

4. 첫 만남

-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게 된 말씀을 주로 들어드립니다.
- 친정언니가 사회복지사와 상담으로 깨끗하고 좋은 2인용 호스피스 병실에 있게 되어 좋다 하심.

▲ 2005.8.30(방문2일)

- 입원 후 한 번도 머리를 못 감으셨다 하시어, 간호사와 의사와의 허락 하에 머리를 감겨드립니다.

▲ 2005.9.2(방문3- 4일)

- 어제 머리 감은 것으로 매우 행복 하셨다 함.

- 이제껏 좋았던 때가 언제였냐고 물으니, 건강 해서 일하러 다닐 때와 봉사하러 다녔던 때라고 하신다.

- 봉사하셨기 땀에 좋은 병실에 있게 되었으며, 저희 봉사도 받아 주시라 말씀 드리니 밝은 미소를 보이심.

▲ 2005.9.3(방문5일)

- 입원후 많이 몸놀림이 좋아졌다고 좋아하시며, 남편 건강 걱정을 하심.
- 2년밖에 안되는 신앙이지만 목사님과 신도들의 다녀가심에 고맙고 편안함을 보이심.

▲ 2005.9.6(방문6일)

- 언니가 오셔서 몸을 닦아 주어서 기분 좋으심.
- 어깨 팔 다리 마사지 해 드리고 발톱과 굳은살을 깎아드립니다.

▲ 2005.9.7(방문7일)

- 입원한지 한 달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좋아하심.
- 만약 죽음이 닥쳐도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라고 마음을 비우니 편안하다 하심.
- 딸에게 엄마께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고, 고맙고 행복했던 일들을 엄마와 얘기하며 나누라 권함.

▲ 2005.9.8(방문8일)

- 시트 정리 해드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립니다.
- 남편이 병실에 오시면 보고 싶었다는 여러 얘기로 표현 좀 해 보시라 권하니 남편은 하는데 본인은 미운 마음으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심.

▲ 2005.9.9(방문9일)

- 체위 변경 시켜드립니다.
- 딸이 간호 하고 있었으며, 사위감은 착한 사람

이었으면 좋겠으며, 딸은 본인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심.

- 밖의 날씨가 궁금하다시며, 얼른 퇴원하여 선선한 날씨를 보고 싶다 하심.
- 남편의 건강이 본인보다 더 우선적이신 듯 걱정

▲ 2005.9.13(방문12일)

- 방송국 촬영에 협조해 주시어 임종실에서 수녀님과 사진찍기, 인터뷰 함.
- 본인이 뭔가 도울수 있는 기회가 된것에 매우 기뻐함.

▲ 2005.9.14(방문13일)

- 체위변경과 머리 감겨 드림.
-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다고 함.
-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팔 다리 마사지 해 드림.

▲ 2005.9.16(방문16일)

-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
- 매우 맘이 편안해 보이시며, 밖에 나가 걸어서 다녀봤으면 좋겠다고 하심. 바깥 햇빛이 좋다고 창밖을 보며 즐기고 계셨음.
- 환자와 “위탁의 기도” 함께 드림.

▲ 2005.9.21(방문18일)

-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심.
- 팔 다리 마사지 해 드리고,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시어 잘라드리고 머리감겨 드림.

▲ 2005.9.22(방문19일)

- 주사부위가 아프시어 잠도 못 주무셨다 함.
- 물수건으로 찜질해 드렸음. 팔 다리 마사지 해 드림.

▲ 2005.9.27(방문22일)

- 지금 본인의 얼굴이 어떠냐고 물으심.
- 입원때 보다 많이 환해 지셨다 말씀드리니 환한 미소 지으심.
- 아들이 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를 사옴. 아들의 정성으로 생각하시고 맛있게 잘 드시라 함.

▲ 2005.9.30(방문25일)

- 오늘 퇴원 하신다고 밝은 표정으로 좋아 하심.
- 가정간호를 신청 하셨다 하시며, 움직일 수 없어서 앰블런스로 집에 가신다고 하심.
- 그동안 봉사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다 하심. 집에 가시어 식사도 잘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라 권함.

5. 맺음말

- 환자와 원활한 관계로 만남은 좋았으며, 환자도 봉사자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는 사례였습니다.
- 그러나 한 달이라는 짧은 입원기간동안 무언가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어두운 감정의 분위기를 파악하였으나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 이에 가정 간호사와 호스피스팀과의 연계 활동으로 충분한 가족간의 화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이끌어 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화기술이 능숙하고 집이 가까운 봉사자가 가정호스피스팀의 일원으로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봉사자 ... 가정방문

1. 가정방문

정가을씨의 남편과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가정방문을 하였음.

2. 환자 상황

- 누워계시지만 항상 밝은 얼굴임.
- 봉사자를 반갑게 맞이함.
- 집에오니 더 좋다고 함.
- 아들이 주로 간병, 큰언니가 토, 일에 방문하여 머리 감기고 목욕.
- 남편이 몸 약하고 술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걱정.
- 함께간 봉사자가 환자와 이야기하며 맛사지 함.

3. 남편과 대화

- 집에 들어서려는데 대문밖에서 동네분 한분과 이야기 하고 있으면서 인사함.
- 붉은 얼굴에 술기운이 있음.

봉사자 : 형제님, 간병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남편 : (눈물이 핑 돌면서) 일어나 앉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자 :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는것 같아요.

남편 : 그럼요. 부부간이 제일이죠.

봉사자 : 그런데 환자는 형제님을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술 많이 드신다고요.

남편 : 조금밖에 안먹어요.

봉사자 : 얼마나 드시는데요.

남편 : 2병밖에 안마셔요.(4홉들이)

봉사자 :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술을 좀 줄이시고 환자와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으며) 부탁드립니다.

4. 아들과 대화

봉사자 : (아들손을 잡으며) 힘들지요?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어요. 볼때마다 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어요.

아들 : (상기된 얼굴로)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요.

봉사자 : 왜?

아들 :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매일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술주정이나 하고 화내고 소리지르고 일도 안하고, 저도 뛰쳐 나가고 싶어요.

봉사자 : 그렇겠지.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아들 : 네. 고생만 하고 사신 어머니와 큰이모와 동생이 신신당부하여 참고 있어요.

봉사자 : 아버지도 속상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방법으로밖에 안되시나봐. 어떻게 하지?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분들이 많아서. 아버지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들 : 아버지를 쳐다보면 화가 나는데요.

봉사자 : 화가 날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옥상에 나와서 한숨을 크게 3번만 쉬어보게. 그리고도 안되면 집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소리를 질러봐요. 마음이 좀 가라앉을 꺼야 (등을 토닥이며 손을 잡아줌).

5. 딸과 대화

작은방으로 손을 잡고 들어가서

봉사자 : 객지에서 고생이 많지요? 오빠가 간병을 잘하고 있어요. 정말 참으로 좋은 오빠를 두었네요.

딸 : 네 (고개를 숙인다)

봉사자 : 돈 열심히 벌어요. 건강 잘 챙기면서..

오빠한테 전화 자주 하지요?

딸 : 오빠 수고한다고 자주 해요.

봉사자 : 잘 하네요. 오빠 마음도 잘 위로해줘요.

6. 환자와 대화

(손을 잡으며)

봉사자 : 참 좋은 가족이네요.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봉사자 : 지금은 아픈곳 있으세요?

환자 : 전보다 좋아요. 안 아파요. 밥도 반공기정도 먹어요.

봉사자 : 참 좋아요. 안아프시니까요.

환자 : 남편이 술만 안먹으면 좋겠어요.

봉사자 : 그럼 이렇게 해 보세요. 남편이 술을 안잡수셨을때 '오늘은 당신히 특별히 예쁘네요' 칭찬을 해보세요.

환자 : (수줍게 웃으면서) 어떻게요.

봉사자 : 용기를 내서 꼭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행복한 순간이 되니까요.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을때는 아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 번 그러다보면 좋은 변화가 생길거예요. 제가 숙제를 냈어요(환자 웃음).

7. 마무리

- 환자와 성가 함께 부름.
- 기도 : 환자를 위하여, 남편, 아들 딸 위하여 기도를 하자 환자도 아멘,아멘 하심.

8. 계획

- 남편과 아들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할것임.
-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임.
-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노력할것임.

사랑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꽃입니다.

호스피스

- 문기숙(성 바오로병원 봉사자) -

젊은 부비동 암 환자입니다,
온통 얼굴은 암 덩이가
침범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부-울
어떻게 해, 이 일을 어떻게 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이제 그만요...
그이가 아무리 업이 많아도
이제 그만 용서 하소서,

그의 잔잔한 얼굴을 보니
참회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용서하시어
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니 지금도 그는 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얼굴이 편안하지요,

그래도 그를 용서 하소서,
가슴이 아파서 다가갈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입이 딱 붙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 하소서
지금까지의 편한 삶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면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참회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